

치 사

평소 깊은 불심을 바탕으로 불법홍포에 진력하시는 조계사 직장직능 전법단의 “최우임 작가 초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선서화 전시가 전년도에 이어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후원을 위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소식으로 접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전쟁과 기아,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에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고 생업현장에 나서지만 버거운 생활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이 허 띠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던 것처럼 교육의 기회가 박탈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런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기숙사가 완비된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해 왔고, 그동안 많은 사찰과 불자들이 소중한 마음으로 정성을 내어, 드디어 2016년 9월 5일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건립한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이 근면하고 건실 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절로 환희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학습분위기 조성과 학업정진에 필요한 컴퓨터, 트랙터, 실습도 구 등의 기자재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조계사 전법지원단이 기자재후원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나눔의 소중한 마음을 내어주신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 최효임 작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가 부처님의 자비하신 광명이 함께해 원만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060(2016)년 6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재) 아름다운동행 이사장